

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,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과 간담회

기사입력 2023-09-13 15:04:06



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(사진 오른쪽 다섯번째)과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(오른쪽 여섯번째)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[대한경제=정석한 기자]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13일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만나 서울지역 건설업계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했다.

이 자리에서 최태진 회장은 “고금리, 고물가 등 영향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영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, 각종 규제 강화로 건설 현장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최 회장은 △서울시 SOC 투자 확대 △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·확대 △한강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지원 △복합공종공사의 공정 발주 문화 확립 등을 건의했다.

이에 임창수 국장은 “건설업계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특히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답했다.

정석한 기자 jobize@

<© 대한경제신문(www.dnews.co.kr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>



경제부

정석한 기자

jobize@dnews.co.kr

- 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' 앱을 다운받으시면
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- 명품 콘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!